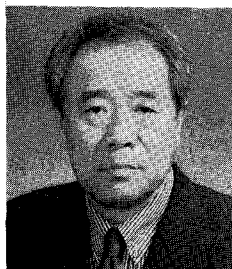


분과위원장에 듣는다(채란)

·채란업 부흥의 시발점이 되기를·



심 준 식

(분회 채란분과위원장/도척농장 대표)

지난해에는 고통과 희망이 교차한 한해로 기억되기에 충분하다. 매년 겪어왔던 계란유통과 난가 할인율을 차치하더라도 태국산 계란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여 우리 채란인에게 충격을 주었던 일과 ND와 AI 등 각종 질병이 전국적으로 발병하여 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위협의 굴레를 벗지 못하였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에도 계란시세 현실화가 실행된 바 있으며, 뒤이어 전국단일 난가를 발표하면서 우리 채란업도 한층 발전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구나 하는 긍지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유통 단체의 통합으로 생산자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채란업 발전의 기운이 가일층 고조되었다. 그러나 후반기 들어서면서 정부

의 계란중량제와 등급제 실시를 앞두고 채란 농가와 유통단체의 손익 의견차이로 혼전이 계속되고, 산란노계 출하어려움과 난가할인율이 점점 커지는 등 매년 겪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올해에는 지난해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을 해야 할 것이다.

1. 질병퇴치로 농가이익을 증대

올해에는 지난해와 같이 각종 질병에 의해 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실 지난해 일시적으로 생산비선 이상의 난가를 회복했던 것은 질병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장과 입추를 포기한 농장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이 채란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더 이상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에 이끌려 ND백신을 공급해서라도 질병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방역에 임했으며, 양계협회에서도 질병대책을 세우고 질병퇴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질병 퇴치는 협회와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회원 농가 스스로 질병을 막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실용계 농장에서의

질병 차단뿐만 아니라 종계장에서 전염되는 질병 피해가 큰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질병을 퇴치하여 품질 좋은 계란을 생산한다면 농가이익은 자연스럽게 증대될 것으로 본다.

2. 회원들의 단합만이 채란업을 살리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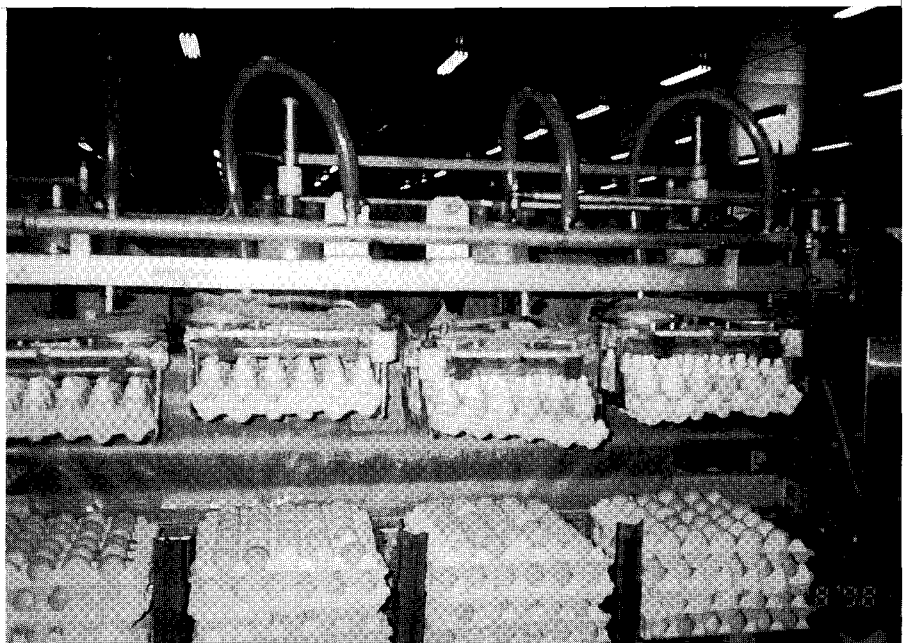
매월 양계협회 분과위원회와 계우회연합회에서는 채란업이 당면한 계란수급조절 및 질병 정보교환 등을 토론하여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과거에는 분과위원회나 계우회연합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따라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 결정사항이 농가수익과 직결되고 보니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려는 농가는 많지 않았다. 결정사항에 대한 실행이 좌충우돌하는 사이 매년 비슷한 문제로 머리를 맞대는 일이 한 두해가 아니었다. 관련업체인 산란종계업자나 계란상인에 대한 대책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채란업자의 수준이 향상되었다. 분과위원회 결정사항을 좀더 단합된 자세로 따라 준다면 그때에 비로소 케이지당 사육수수조절, 계란생산

량조절, 질병정보교환, 악덕상인퇴출 등 기타 채란업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3. 계란 등급제 실시에 대한사전 준비 필요

1998년 대만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축산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2000년에 우리나라도 대만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이로 인한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의한 피해가 점점 커지게 되고 이것이 언론에 자주 등장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먹거리 품질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 채란업의 생산시설은 어느정도 규모화를 이루었다고 보고 있지만 품질 향상에는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싶다. 외국의 경우 계란 품질의 등급제를 실시하여 품질이 저하된 계란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지난해 품질 등급제에 대하여 현란하게 논의가 되고 있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등급제 실시는 지연되고 있다. 새옷을 사면 몸에 잘 맞지 않지만 자꾸 입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처럼 새로운 제도도 농가에서 당장 적용하기 힘이 들더라도 새로운 제도 도입만이 채란농가가 살 길이라고 받아들여 빨리 실행하여 적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4. 계란수출에 관심을

태국이 과일 생산을 기반으로 수출을 적극 모색해 왔고 우리나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계탕을 제외하고 닭고기는 국내 수급을 조절할 만큼 수출을 하지 못하고, 계란은 내수시장에만 의존하여 왔다. 그런데 육계를 전문사육하는 계열업체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탈피하고자 닭고기 대일 수출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고 몇 번의 실무진 교류를 갖는 등 수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채란업에서 수출의 길을 연다는 것은 실현할 수 없는 꿈과 같다. 물론 채란업자중 일부에서 계란 수출을 타진하다가 수지가 맞지 않아 포기한 사례는 있었지만 전 업계가 나서 수출을 준비한 사례는 없었다. 수출의 걸림들은 가격과 품질이 아닌가 싶다. 대일 수출을 기준으로 할 때 계란가격을 30원대에 맞추어야 하고 품질은 각종 항생제, 살모넬라 검사 등을 통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계란 수출가격이 30원대라면 사양가들 중 몇 농가에서 계란 생산비가 30원대를 유지할 것인지

의문이다. 그러므로 계란 생산비와 계란품질을 계란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다년간 노력한다면 계란수입에 의한 타격은 자연 없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5. 위기를 기회로

국내경기가 계속되는 금융기관의 사고, 벤처기업의 부정, 정치권의 파행 등으로 악화되어 회복되지 않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서민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그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감소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순리에 근거한다면 계란소비도 자연 감소할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계란소비 전망의 자대를 바꿀 시기가 아닌가 싶다. 경제악화로 비싼 소비재의 소비가 감소하면 값이 비교적 싼 계란은 그만큼 경제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식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경제 사정이 어려우면 어려운 시기에 맞추어 계란이 가진 장점을 내세워 홍보하여 소비를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IMF 시대를 겪으면서 누구나 다 같이 경제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 어려운 시기에도 오히려 재산이 늘어난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물론 구조적인 모순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단지 어려운 시기에도 지혜를 모아 부지런히 살아갈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라는 말을 되새겨 2001년을 채란업 부흥의 시발점으로 삼아보자. **양계**